

동북일보 4면

구본승 구의원, 친환경 도시농업 지원조례 제정

구민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 공동체 형성에 기여

미아/송중/변3동)이 구민에게 건강하고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7일(화)에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7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

시텃밭을 지정하고 상자텃밭 등을 보급할 수 있으며,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도시농업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옥상 및 베란다, 유희지 등의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 건강한 먹을거리는 물론 도심 온도의 저감과 온실가스의 감축 등

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공동체 형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강북신문 5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구본승 의원, “구민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



구본승 의원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이 구민에게 건강하고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 지난 12월 17일에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7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강북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

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도시텃밭을 지정하고 상자텃밭 등을 보급할 수 있으며,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도시농업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옥상 및 베란다, 유희지 등의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 건강한 먹을거리는 물론 도심 온도의 저감과 온실가스의 감축 등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공동체 형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승계 요건 완화됐다

구본승 의원 대표발의 건의문 반영돼



구본승 강북구의원(무소속/미아,송중,번3동)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23일, 제16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족의 명의변경 완화 건의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에 반영돼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강북구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LH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은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 제7의3호에 따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건의안이 반영되어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일인 2013년 7월 29일 이후에 월평균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당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상속인에게도 계약자 명의변경이 허용됐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입주권 승계요건이 완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가족이 되거당하지 않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세대주가 사망하여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구본승 구의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무소속, 미아 송중 번3동)이 구민에게 건강하고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7일에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7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도시텃밭을 지정하고 상자텃밭 등을 보급할 수 있으며,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도시농업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옥상 및 베란다, 유휴지 등의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 건강한 먹을거리는 물론 도심온도의 저감과 온실가스의 감축 등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공동체 형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본승 강북구의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

“구민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 공동체 형성”에 기여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무소속, 미아·송중·번3동)이 구민에게 건강하고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에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7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북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도시텃밭을 지정하고 상자텃밭 등을 보급할 수 있으며,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도시농업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발굴 시상할 수 있으



며’,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옥상 및 베란다, 유휴지 등의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도시농업이 활성화돼 건강한

먹을거리는 물론 도심온도의 저감과 온실가스의 감축 등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공동체 형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